프랑스 혁명에서 이끌어내는 감정 이론

역사학자 윌리엄 레디 '감정의 항해', 감정체제 다뤄

"사실 그 20년 동안 감정적 표현이 과격화된 것은, 18세기 프랑스사를 전공하는 역사가들에게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다. 최근의 감상주의 연구자들 역시 한 세대 전의 선배 역사가들 못지않게 그 문제를 불편해한다. 다니엘 모르네는 1929년의 연구에서 '평범해진' 감상주의 지지자들을 '부르주아 울보들'이라고 불렀다.

로버트 단턴은 1985년의 연구에서 루소의 '신엘로이즈'를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선언했다.

18세기 프랑스의 그 베스트셀러 소설은 현대의 독자들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다. '폭력이나 섹스 등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중단되지도 않은 채 여섯 권 내내 감성이 펼쳐지기' 때문이다.(245쪽)

"인류학의 감정 연구를 지배한 것은 감정을 문화적 구성물로 간주하는 관점이었고, 이는 감정의 세계적 다양성에 대한 새롭고 설득력 있는 다양한 설명을 생산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이론과 정치성 두 측면에서 문제점에 봉착했다. 감정이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은, 감정을 생물학적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서양의 상식을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지역의 감정적 실천을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빼앗았다. 구성주의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서양의 관점과 실천조차 비판할 수 없다. 구성주의에 충실하면, 서양의 관점이 다른 지역의 관점보다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할 뿐이다."(92쪽)

윌리엄 M 레디(69) 미국 듀크대 교수의 '감정의 항해'가 번역 출간됐다. 레디의 도발적인 감정 이론을 담은 책이다. 감정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서양의 자유 개념,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 감정의 역사화 가능성 등 첨예한 이슈들을 논한다.

레디는 현 감정 연구에서는 하나의 혁명이 아니라 세 개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심리학자들이 인지 연구를 위해 고안된 실험실 연구 기법을 감정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혁명을 촉발시켰고, 인류학자들이 감정의 문화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현장연구 기법과 이론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두번째 혁명을 촉발시켰다.

마지막으로 역사가들과 문예비평가들은 감정이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감상주의' 혹은 '감수성 숭배'로 불리는 감정 혁명의 성쇠를 추적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

레디는 인류학의 감정 구성론을 '인류학적 현재'로 칭하면서 그들에게 역사성과 정치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한다. 행동주의 심리학 연구소의 펠로이기도 한 레디는 그 출구를 인지심리학, 특히 실험 심리학에서 발견한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인지이다.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목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생각 재료가 활성화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일부만이 의식에 입장한다. 의식에 입장하지 못한 활성화된 생각 재료, 바로 그것이 감정이다. 레디는 감정에 대한 이러한 심리학적 해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감정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질문한다. 그는 생각 재료를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발동시키는 것은 '이모티브(imotive)'라고 칭한다.

"당시에는 아무도 로베스 피에르의 죽음이 공포정치의 종식을 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사후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다. 그때는 아무도 로베스 피에르의 죽음이 자코뱅적인 판본의 감상주의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것, 심지어 정치에 감정을 긍정적으로 개입시키려는 거의 모든 시도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듯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이모티브에 대한 염증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남용되지 않은 새로운 어조가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을 주름잡기 시작했다. 자코뱅의 청교도적인 감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부패가 공공연해지자, 파리에 냉소적인 파티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목에 빨간 리본을 맨 여자들이 극장과 무도장에 나타났다. 그것은 기요틴에서 처형된 사람들에 대한 유희적 기억 행위였다."(303쪽)

"예컨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감정의 항해에 광대한 여지를 제공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이 계약적인 관계들, 즉 돈과 재산에 대한 접근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 체제에서 단 하나의 계약적 관계에 의존하여 소득과 사회적 정체성을 얻는 사람들(봉급생활자들이나 특정 법질서 치하의 기혼여성들)은 감정관리 전략을 선택하는 데서 막대한 제약을 받는다. 물론 그 제약의 정도는 소속 기업과 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족이 법의 외부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는 그 전략이 더더욱 달라진다."(196~197쪽)

윌리엄 레디 '감정의 항해'

옮긴이 김학이는 "인간은 이모티브를 어디서 얻는가? 공동체, 즉 해당 사회의 문화와 의례와 종교적 실천과 담론에서 얻는다"며 "따라서 감정은 사회와 강력하게 묶여 있다. 정의상 감정은 개개인의 내밀한 세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사회적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정을 장악하는 공동체는 안정을 구가한다. 그러므로 모든 체제는 각종의 이모티브를 공급한다. 레디는 그러한 체제를 '감정체제(regime of emotions)'라고 칭한다. 개개인은 체제가 공급한 이모티브를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준칙을 따르려 한다. 레디는 이를 '감정적 노력'으로 칭한다."

614쪽, 3만2000원, 문학과지성사

/정해은 기자

김제벽골제 수문 '중심거' 구조 확인

문화재청은 김제 벽골제 제방의 수문 중 하나인 중심거의 형태와 구조, 축조방법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사항들은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아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번에 발굴된 중심거는 제방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2개의 수문인 장생거, 경장거와 같은 구조로 설계됐으며 이후 기존 크기보다 규모가 줄어들어 길이 1,770㎝, 너비 1,480㎝만 남게 됐다.

또한 양쪽에 세워진 돌기둥은 상단부가 훼손돼 현재는 너비 83㎝, 두께 70㎝ 크기의 하단부만 존재 한다.

도수로는 물을 내보내는 길로 물이 흘러나갈 때 벽체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200㎝ 정도의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았다. 지금은 북측에 길이 1,140㎝, 너비(중앙 부분) 420㎝ 규모의 2단 석축만 남아 있다.

중심거에서 확인된 수문의 형태는 중국 상해 오송강에 위치한 지단원원대수갑유적과 유사하며, 제방 성토공법 기술인 부영공법(나뭇가지, 잎사귀 등을 깔고 흙은 쌓는 방식)은 벽골제보다 후대에 축조된 일본 협산지에서도 확인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벽골제 제방 성토공법과 수문 축조기법은 한·중·일 수리시설 간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재청은 벽골제 발굴현장을 29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정해은 기자

삼례서 미디어아트 기획전

VM아트미술관 'Space of Silence' 진행

도내 유일의 미디어 아트 미술관인 삼례문화예술촌(완주군 삼례읍 소재)내 VM아트미술관에서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기획전 'Space of Silence'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국내 미디어 아트 작가 10인 참여한 전시로 조용한 공간 속에 보여 지는 미디어 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고정수 작가의 '반달곰 태권도 하다'는 조형과 빛을 절묘하게 표현한 조형작품으로 반달곰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박상화 작가의 '이너드림-서산동'은 항구도시 목포의 유달산자락에 위치한 서산동을 수제스크린으로 표현해 기억과 향수를 되새겨 보게 한다.

또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강렬하면서도 경쾌한 공간을 만들어 낸 야외조형 작품 양태근 작가 종이학과 백종인 작가의 황소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통해 공간의 소통을 표현하고 있다.

뉴미디어아트와 공간의 또 다른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이번 기획전은 평면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공감각적인 미디어의 작품을 통해 초현실적인 공간 뿐 아니라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VM아트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잔인했던 4월 세월호의 아픔 기리며'

4·16기억저장소, 유품세탁·사진전 개최

'죽은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잔인한 4월이 온다.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우는' 것 처럼 '세월호 참사'가 다시 눈을 뜨는 계절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2년만에 '유류품 유품세탁' 행사가 열리고, 사진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에 나선다.

4·16기억저장소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304명의 유류품·유품을 닦는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진도 군청에 보관되어 있던 유품을 안산 합동 분향소로 가져왔다.

유가족과 시민 사진작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전수 조사했던 유류품 유품들이다.

2년여간 방치되었던 유품 · 유류품을 장기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세탁과 세척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진다. 세탁 봉사자 50여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

4·16기억저장소는 "세탁 세척된 유류품 유품은 확인절차를 거쳐 주인을 찾아주고 다른 현 편으로는 영구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4.16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416기억저장소 등이 주관하는 사진 전시도 4월 2일부터 열린다

'4·16 세월호참사 기억프로젝트2.0-'두 해, 스무네 달'을 타이틀로한 사진기록 전시다.

안산 4·16기록전시관에서 연이후 제주, 서울에서 9월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4·16기억저장소는 "이번 전시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각인'을 통해 4·16세월호참사 이후 사회에 던지는 다양한 시선들을 풀어 놓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웹젠, 인기게임 뮤 오리진 후속작 '레전드' 공개

MMORPG 2종, PC 웹 게임 2종, 모바일 게임 7종으로 장르와 규모가 다양하다.

게임 신작 가운데 온라인 MMORPG '뮤 레전드'는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뮤 오리진'의 후속작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뮤 레전드는 웹젠의 게임개발 전문자회사 웹젠앤플레이가 직접 만든 게임이다. 이 게임은 전작에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 '마왕 쿤둔'의 부활을 막기위한 주인공의 활약을 다룬다. 이날 공개된 게임 시연 영상에서 정교해진 그래픽이 눈길을 끌었다.웹젠은 4월 21일 뮤 레전드의 첫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웹젠은 뮤 오리진의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파생 게임도 개발하고 있다. '뮤 이그니션'과 '기적중생'은 뮤 오리진의 세계관을 이어받은 웹게임으로 하반기 출시된다. 정만손 웹젠 뮤레전드 감독은 "뮤 오리진 IP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후속작에 '레전드'라는 제목을 붙였다"면서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됐지만 온라인 게임의 위상이 흔들렸다고 보지 않는다. 온라인과 모바일 신작으로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신인 슈퍼모델 김설희 컬렉션서 주목

신인 김설희(18·178㎝)가 모델계 '수퍼루키'로 떠오르고 있다.

소속사 YG케이플러스에 따르면, 김설희는 데뷔 무대인 '2016 S/S 헤라서울패션위크'에서 총 16개 컬렉션에 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

곽현주, 이지연, 권문수, 김무홍, 김지은, 정미선, 스티브제이앤요니피 등의 메인 쇼에 이름을 올렸다. 정미선 컬렉션에서는 피날레를 장식했다.

YG케이플러스는 "동양적이면서도 예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워킹과 눈빛으로 권문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유일한 여자 모델로 등장, 패션 업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럭키슈에뜨 모델인 김설희는 패션 화보뿐 아니라 뷰티 화보, 매거진, 쇼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3월 30일〉

▷쥐띠
48년생: 무리한 일은 삼가라.
60년생: 아끼는 것이 지나치면 원망을 듣게 되니 주의하라.
72년생: 윗사람의 덕이 따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되니 욕심을 부리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소띠
49년생: 분주다사한 운이나 인덕이 따르니 힘들기만 하지는 않으니 편안하게 생각하라.
61년생: 서로 웃고 있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3년생: 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2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
74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친다.
86년생: 익숙한 일에 대해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

▷토끼띠
51년생: 동기간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3년생: 급하게 서두를수록 점점 틀어지니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75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니 돌파구가 필요한 운이다.
87년생: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니 과유불급이다.

▷용띠
52년생: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64년생: 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나 정작 본인은 흡족하지 못하니 욕심을 버려라.
76년생: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은 슬픔이 도래하는 운이다. 미리 대비하라.
88년생: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65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77년생: 모든 화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89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말띠
54년생: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시간 낭비일 뿐이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
9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아끼려다가 인심을 잃는다.
67년생: 횡재를 바라면 재난이 발생하니 땀 흘려 노력해 얻은 것에만 만족하라.
79년생: 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면 탈이 나는 운이다.
91년생: 원행은 불리하나 그 외의 것에는 좋은 운이니 열심히 노력하라.

▷원숭이띠
56년생: 귀인이 돕고 하늘이 도우니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라.
68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92년생: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잡으면 포기하게 되니 주의하라.

▷닭띠
57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굴곡이 따른다.
81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
93년생: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흉하나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운이다.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때.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은 금물. 천천히 이루어야 하는 운이다.